

담당자 연락처:  
Shauna Schuda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홍보부 부장  
630-468-7075  
Shauna.Schuda@LionsClubs.org

## 즉시 배포용

### 튀르키예의 6학년생 예트카 야기즈 데미르타스(Yetka Yağiz Demirtas),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 대상 수상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 튀르키예 앙카라에 사는 12세의 예트카 야기즈 데미르타스는 평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데미르타스는 대상 수상작인 ‘*내 마음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수필은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과 매일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자신과 나누는 복잡한 내면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예트카의 사려 깊은 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꿈꾸고 달성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라고 패티 힐 국제회장은 말했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는 전 세계 라이온스클럽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온들은 지역의 학교와 가정의 도움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파악합니다.

“평화는 모두의 것이며, 언어, 종교, 인종 또는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데미르타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지만, 지치지 않고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상작은 독창성, 구성, ‘큰 꿈을 꾸다’라는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재능 있는 6학년 학생은 이스탄불 알틴테페 라이온스 클럽에서 후원한 지역 경연대회를 통해 이번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데미르타스는 이 수필을 통해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일을 넘어, 훌륭한 학생, 친구, 가족 되기, 타인에게 귀 기울이고 배우며 성장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기와 같은 더 큰 사명도 존재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항상 조화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삶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존중한다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라고 12 살의 데미르타스는 덧붙였습니다.

데미르타스는 여가 시간에 수영, 시 읽기, 예술, 합창을 즐기며, 커서 역사학 교수와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대상 수상자로서 데미르타스는 상과 상금 5,000 달러, VIP 로서 라이온스 인터내셔널의 주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데미르타스의 수상작 및 평화 수필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회 웹사이트 [lionsclubs.org/ko/peace-essay](https://lionsclubs.org/ko/peace-essa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200 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140 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회원 중심 봉사 단체입니다. 라이온스 인터내셔널은 평화 수필 경연대회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에게 평화 및 국제이해 증진에 대한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

**2023-2024 라이온스 국제 평화 수필 대상 수상자**  
**에트카 야기즈 데미르타스, 12 세**  
**“내 마음의 서랍”**

오늘 저는 긴 여정을 위해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언제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윗 서랍부터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일상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공부하기, 먹기, 양치하기 등 많은 일상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찾고 싶은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랍을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진짜 목표를 찾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인상 깊은 추억과 상징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이 제게 주신 현관문 열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집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의 진짜 의미는 ‘여기가 나의 집이고, 나는 이 집의 일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9 살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자랑, 나의 사랑아... 아빠는 우리 아들이 이 노트에 있는 페이지들처럼 수많은 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행운을 빌고, 사랑한다. 아빠가.”

이제 12 살이 된 지금의 에트카 야기즈는 아버지가 제게 매우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며, 제 마음의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더욱 설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여기는 아주 새카맣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검은색이 항상 어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검은 서랍의 정 가운데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게 계속해서 “난 못해, 조심해, 이것은 어려워”라고 말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제 눈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예트카! 큰 꿈을 꾀!”

저는 희망과 상상에 눈을 감아버린 ‘진짜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제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꿈을 꾸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말처럼 저는 색깔을 볼 수는 없지만, 상상 속에서 무지개에 수 천 가지 색깔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흰색이 항상 밝은 것도 아니고, 검은색이 항상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마음의 서랍 속에 쌓인 오해입니다.

네번째 서랍은 없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서랍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검은 빈 서랍을 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저의 자신감은 제가 잘 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꿈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수영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합니다. 제가 해낼 수 있다고 꿈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큰 꿈을 꾸는 일’을 계속 해나갈 때입니다. 저의 여정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